

민주노동당의 의의와 이후 방향

높은 찬성율, 실질적인 참여율로 이끌어야

● 민주노동당 찬성률 높은 투표표

지역	연령	성별	찬성률
서울	20대	남	78.5%
	20대	여	75.2%
	30대	남	72.1%
	30대	여	69.8%
부산	20대	남	76.3%
	20대	여	73.9%
	30대	남	71.5%
	30대	여	68.7%
대구	20대	남	74.8%
	20대	여	72.4%
	30대	남	70.1%
	30대	여	67.9%
대전	20대	남	73.6%
	20대	여	71.2%
	30대	남	69.4%
	30대	여	66.5%
전주	20대	남	72.9%
	20대	여	70.5%
	30대	남	68.7%
	30대	여	65.8%
광주	20대	남	71.8%
	20대	여	69.4%
	30대	남	67.6%
	30대	여	64.9%
충주	20대	남	70.5%
	20대	여	68.1%
	30대	남	66.3%
	30대	여	63.6%
청주	20대	남	69.4%
	20대	여	67.0%
	30대	남	65.2%
	30대	여	62.5%
대전	20대	남	68.3%
	20대	여	65.9%
	30대	남	64.1%
	30대	여	61.4%
전주	20대	남	67.2%
	20대	여	64.8%
	30대	남	63.0%
	30대	여	60.3%
광주	20대	남	66.1%
	20대	여	63.7%
	30대	남	61.9%
	30대	여	59.2%
충주	20대	남	65.0%
	20대	여	62.6%
	30대	남	60.8%
	30대	여	58.1%
청주	20대	남	63.9%
	20대	여	61.5%
	30대	남	59.7%
	30대	여	57.0%
대전	20대	남	62.8%
	20대	여	60.4%
	30대	남	58.6%
	30대	여	55.9%
전주	20대	남	61.7%
	20대	여	59.3%
	30대	남	57.5%
	30대	여	54.8%
광주	20대	남	60.6%
	20대	여	58.2%
	30대	남	56.4%
	30대	여	53.7%
충주	20대	남	59.5%
	20대	여	57.1%
	30대	남	55.3%
	30대	여	52.6%
청주	20대	남	58.4%
	20대	여	56.0%
	30대	남	54.2%
	30대	여	51.5%
대전	20대	남	57.3%
	20대	여	54.9%
	30대	남	53.1%
	30대	여	50.4%
전주	20대	남	56.2%
	20대	여	53.8%
	30대	남	52.0%
	30대	여	49.3%
광주	20대	남	55.1%
	20대	여	52.7%
	30대	남	50.9%
	30대	여	48.2%
충주	20대	남	54.0%
	20대	여	51.6%
	30대	남	49.8%
	30대	여	47.1%
청주	20대	남	52.9%
	20대	여	50.5%
	30대	남	48.7%
	30대	여	46.0%
대전	20대	남	51.8%
	20대	여	49.4%
	30대	남	47.6%
	30대	여	44.9%
전주	20대	남	50.7%
	20대	여	48.3%
	30대	남	46.5%
	30대	여	43.8%
광주	20대	남	49.6%
	20대	여	47.2%
	30대	남	45.4%
	30대	여	42.7%
충주	20대	남	48.5%
	20대	여	46.1%
	30대	남	44.3%
	30대	여	41.6%
청주	20대	남	47.4%
	20대	여	45.0%
	30대	남	43.2%
	30대	여	40.5%
대전	20대	남	46.3%
	20대	여	43.9%
	30대	남	42.1%
	30대	여	39.4%
전주	20대	남	45.2%
	20대	여	42.8%
	30대	남	41.0%
	30대	여	38.3%
광주	20대	남	44.1%
	20대	여	41.7%
	30대	남	39.9%
	30대	여	37.2%
충주	20대	남	43.0%
	20대	여	40.6%
	30대	남	38.8%
	30대	여	36.1%
청주	20대	남	41.9%
	20대	여	39.5%
	30대	남	37.7%
	30대	여	35.0%
대전	20대	남	40.8%
	20대	여	38.4%
	30대	남	36.6%
	30대	여	33.9%
전주	20대	남	39.7%
	20대	여	37.3%
	30대	남	35.5%
	30대	여	32.8%
광주	20대	남	38.6%
	20대	여	36.2%
	30대	남	34.4%
	30대	여	31.7%
충주	20대	남	37.5%
	20대	여	35.1%
	30대	남	33.3%
	30대	여	30.6%
청주	20대	남	36.4%
	20대	여	34.0%
	30대	남	32.2%
	30대	여	29.5%
대전	20대	남	35.3%
	20대	여	32.9%
	30대	남	31.1%
	30대	여	28.4%
전주	20대	남	34.2%
	20대	여	31.8%
	30대	남	30.0%
	30대	여	27.3%
광주	20대	남	33.1%
	20대	여	30.7%
	30대	남	28.9%
	30대	여	26.2%
충주	20대	남	32.0%
	20대	여	29.6%
	30대	남	27.8%
	30대	여	25.1%
청주	20대	남	30.9%
	20대	여	28.5%
	30대	남	26.7%
	30대	여	24.0%
대전	20대	남	29.8%
	20대	여	27.4%
	30대	남	25.6%
	30대	여	22.9%
전주	20대	남	28.7%
	20대	여	26.3%
	30대	남	24.5%
	30대	여	21.8%
광주	20대	남	27.6%
	20대	여	25.2%
	30대	남	23.4%
	30대	여	20.7%
충주	20대	남	26.5%
	20대	여	24.1%
	30대	남	22.3%
	30대	여	19.6%
청주	20대	남	25.4%
	20대	여	23.0%
	30대	남	21.2%
	30대	여	18.5%
대전	20대	남	24.3%
	20대	여	21.9%
	30대	남	20.1%
	30대	여	17.4%
전주	20대	남	23.2%
	20대	여	20.8%
	30대	남	19.0%
	30대	여	16.3%
광주	20대	남	22.1%
	20대	여	19.7%
	30대	남	17.9%
	30대	여	15.2%
충주	20대	남	21.0%
	20대	여	18.6%
	30대	남	16.8%
	30대	여	14.1%
청주	20대	남	19.9%
	20대	여	17.5%
	30대	남	15.7%
	30대	여	13.0%
대전	20대	남	18.8%
	20대	여	16.4%
	30대	남	14.6%
	30대	여	11.9%
전주	20대	남	17.7%
	20대	여	15.3%
	30대	남	13.5%
	30대	여	10.8%
광주	20대	남	16.6%
	20대	여	14.2%
	30대	남	12.4%
	30대	여	9.7%
충주	20대	남	15.5%
	20대	여	13.1%
	30대	남	11.3%
	30대	여	8.6%
청주	20대	남	14.4%
	20대	여	12.0%
	30대	남	10.2%
	30대	여	7.5%
대전	20대	남	13.3%
	20대	여	10.9%
	30대	남	9.1%
	30대	여	6.4%
전주	20대	남	12.2%
	20대	여	9.8%
	30대	남	8.0%
	30대	여	5.3%
광주	20대	남	11.1%
	20대	여	8.7%
	30대	남	6.9%
	30대	여	4.2%
충주	20대	남	10.0%
	20대	여	7.6%
	30대	남	5.8%
	30대	여	3.1%
청주	20대	남	8.9%
	20대	여	6.5%
	30대	남	4.7%
	30대	여	2.0%
대전	20대	남	7.8%
	20대	여	5.4%
	30대	남	3.6%
	30대	여	0.9%
전주	20대	남	6.7%
	20대	여	4.3%
	30대	남	2.5%
	30대	여	-0.2%
광주	20대	남	5.6%
	20대	여	3.2%
	30대	남	1.4%
	30대	여	-1.3%
충주	20대	남	4.5%
	20대	여	2.1%
	30대	남	0.3%
	30대	여	-2.4%
청주	20대	남	3.4%
	20대	여	1.0%
	30대	남	-0.8%
	30대	여	-3.5%
대전	20대	남	2.3%
	20대	여	-0.1%
	30대	남	-1.9%
	30대	여	-4.6%
전주	20대	남	1.2%
	20대	여	-1.2%
	30대	남	-3.0%
	30대	여	-5.7%
광주	20대	남	0.1%
	20대	여	-2.3%
	30대	남	-4.1%
	30대	여	-6.8%
충주	20대	남	-1.0%
	20대	여	-3.4%
	30대	남	-5.2%
	30대	여	-7.9%
청주	20대	남	-2.1%
	20대	여	-4.5%
	30대	남	-6.3%
	30대	여	-9.0%
대전	20대	남	-3.2%
	20대	여	-5.6%
	30대	남	-7.4%
	30대	여	-10.1%
전주	20대	남	-4.3%
	20대	여	-6.7%
	30대	남	-8.5%
	30대	여	-11.2%
광주	20대	남	-5.4%
	20대	여	-7.8%
	30대	남	-9.6%
	30대	여	-12.3%
충주	20대	남	-6.5%
	20대	여	-8.9%
	30대	남	-10.7%
	30대	여	-13.4%
청주	20대	남	-7.6%
	20대	여	-10.0%
	30대	남	-11.8%
	30대	여	-14.5%
대전	20대	남	-8.7%
	20대	여	-11.1%
	30대	남	-12.9%
	30대	여	-15.6%
전주	20대	남	-9.8%
	20대	여	-12.2%
	30대	남	-14.0%
	30대	여	-16.7%
광주	20대	남	-10.9%
	20대	여	-13.3%
	30대	남	-15.1%
	30대	여	-17.8%
충주	20대	남	-12.0%
	20대	여	-14.4%
	30대	남	-16.2%
	30대	여	-18.9%
청주	20대	남	-13.1%
	20대	여	-15.5%
	30대	남	-17.3%
	30대	여	-20.0%
대전	20대	남	-14.2%
	20대	여	-16.6%
	30대	남	-18.4%
	30대	여	-21.1%
전주	20대	남	-15.3%
	20대	여	-17.7%
	30대	남	-19.5%
	30대	여	-22.2%
광주	20대	남	-16.4%
	20대	여	-18.8%
	30대	남	-20.6%
	30대	여	-23.3%
충주	20대	남	-17.5%
	20대	여	-20.0%
	30대	남	-21.8%
	30대	여	-24.5%
청주	20대	남	-18.6%
	20대	여	-21.0%
	30대	남	-22.8%
	30대	여	-25.5%
대전	20대	남	-19.7%
	20대	여	-22.1%
	30대	남	-23.9%
	30대	여	-26.6%
전주	20대	남	-20.8%
	20대	여	-23.2%
	30대	남	-25.0%
	30대	여	-27.7%
광주	20대	남	-21.9%
	20대	여	-24.3%
	30대	남	-26.1%
	30대	여	-28.8%
충주	20대	남	-23.0%
	20대	여	-25.4%
	30대	남	-27.2%
	30대	여	-30.0%
청주	20대	남	-24.1%
	20대	여	-26.5%
	30대	남	-28.3%
	30대	여	-31.0%
대전	20대	남	-25.2%
	20대	여	-27.6%
	30대	남	-29.4%
	30대	여	-32.1%
전주	20대	남	-26.3%
	20대	여	-28.7%
	30대	남	-30.5%
	30대	여	-33.2%
광주	20대	남	-27.4%
	20대	여	-30.0%
	30대	남	-31.8%
	30대	여	-34.5%
충주	20대	남	-28.5%
	20대	여	-31.0%
	30대	남	-32.8%
	30대	여	-35.5%
청주	20대	남	-29.6%
	20대	여	-32.0%
	30대	남	-33.9%
	30대	여	-36.6%
대전	20대	남	-30.7%
	20대	여	-33.1%
	30대	남	-35.7%
	30대	여	-38.4%
전주	20대	남	-31.8%
	20대	여	-34.2%
	30대	남	-37.5%
	30대	여	-40.2%
광주	20대	남	-32.9%
	20대	여	-35.3%
	30대	남	-39.3%
	30대	여	-42.0%
충주	20대	남	-34.0%
	20대	여	-36.4%
	30대	남	-41.1%
	30대	여	-43.8%
청주	20대	남	-35.1%
	20대	여	-37.5%
	30대	남	-42.9%
	30대	여	-45.6%
대전	20대	남	-3

〈글 쓰는 순서〉

1. 북한의 경제구조
2.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3.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4. 통일을 준비하는 경험의 상

이제 남북한의 관계는 이념과 체제경쟁의 논리로부터 화해와 평화의 논리로, 열정적인 감성과 운동자원의 논리로, 냉정한 이성적 경제의 현실성으로 접근할 때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게 되면 통일안은 저절로 오기 마련이고 열정이 지나치면 현실을 그르치며 대결적 수상을 가진 정치·군사적 접근보다는 합리적 본질을 가진 경제적 접근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움직임에 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마디로 남북경협은 통일의 창이며 촉매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경험문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과 보완성 속에서만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풀려갈 수 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민간기업이 답답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민간의 경우에도 수 있는 무작정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동경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경제협력과 병행하여 삶을 포함한 경제지원이 못지않게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해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점에서 최우선적인 현안이다. 경제교류·협력에 동시적인 상호주의의 일면이라고 한다면 경제지원은 단기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상호의 이익에 기여해 되는 일이다. 그야말로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 중의 하나이다.



남북경협은 민족교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미국방문 중 교포들과 소집고 '동일의 노래'를 부르는 이종혁 이태형 최영환부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의 모습이다.

이제 남북한의 관계는 이념과 체제경쟁의 논리로부터 화해와 평화의 논리로, 열정적인 감성과 운동자원의 논리로, 냉정한 이성적 경제의 현실성으로 접근할 때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게 되면 통일안은 저절로 오기 마련이고 열정이 지나치면 현실을 그르치며 대결적 수상을 가진 정치·군사적 접근보다는 합리적 본질을 가진 경제적 접근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움직임에 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대북지원의 필요성

문민정부 출범 후 통일정책 관련자들의 시각은 비교적 전향적이었다. 또한 나중엔 정통당원들은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한 바 있고 신일 권오기 부총리 역시 "북한 당국이 민다고 해서 대북지원을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후원지원의 만치령 학식과 감탄을 가진 이들 두 정부인사들의 대북관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지자체 선거 이후 급변의 총선에 이르기까지 정시권 인사들과 일부 국민연대에 밀려 대북 살지원을 비롯한 경제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있어왔다. 이는 대북 살지원을 포함한 정치·사회의 분위기와 연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럴만 한 일이었다.

대북협상 참가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당국자도 아닌 대북경제지원자도 아니나 북한에 이렇듯 있었다. 국민적 합의와 북한과의 화해의 논의과정이라든가 거창하여 왔는데 한겨레를 의식하여 비단 치기로 몰아붙여진다는 오해가 있었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지나간 일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만 남았다.

수많은 인망이 희생된 전열을 치우고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총부리를 겨누고

상황에서 정서적 갈등과 상흔을 쉽게 치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럴수록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북 살지원을 비롯한 경제지원을 적극화하여 새로운 역사의 계기를 마련하기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된다.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야 한다. 세계는 지구촌의 돼지고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류의 평화와 공존, 광명의 시대적 과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물론 심지어는 적대관계에 있던 소련에 30억불, 중국에 30억불, 동구권에 5억불 등 엄청난 경제지원을 하였다. 이것은 물론 본수에 넘치는 지원책이기는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북한주민은 쌀밥과 굴뚝이 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인도주의의 발현이다.

둘째, 민족의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 북한주민은 더불어 우리와 한민족인 존재자이다. 그동안 우리는 프랑스나 난민을 도왔고, 지금도 국제협력단을 통해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을 지원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물며 그들 못지않게 비참한 생활에 처해있는 북한 동포에게 인색하다면 이는 우리 민족 자체의 존엄을 말라하는 일이다. 따뜻한 가슴과 뜨거운 민족애, 이는 거창하게 말한다면 인류와 천륜의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대북관계를 주도하고 국제사회

의 뜻을 거머쥐지 못하기 위해서이다. 사실상 대북관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더우기 북한이 문제의 본질을 추태로 대립한 핵협상체제에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는 돈만 대고 생색은 강대국이 내게끔 돼있어 국제적 위상이 또한한 실추되게 돼있다. 이런 일은 뒤늦게 치우려 애쓰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고 국제적인 대세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의 지원요청이 있어야 지원하겠다는 것도 한두번 협상책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주장만 한다면 유언장을 가져와서는 협상의 기본에도 어긋난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왜소화 만드는 일이다.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남한이 북한보다 GNP에 있어서는 17.8배, 무역량에 있어서는 63배나 크다. 말하자면 북한 경제가 깨진 채를 못든다는 구멍가게 살림이라면 남한은 배부른 재벌기업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굴뚝만에 하둑이는 파산직전의 구멍가게 주인에게 재발급 회장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허리를 굽혀 구멍을 청하면 몇 톨돈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천진한 본주의적 클루브 발상인가.

넷째,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 우리가 들이게 될 지 모르는 비용을 줄이면서 북한을 돕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의 추태도 보아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붕괴의 위험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붕괴된다면 1인당 GNP 1000달러를 겨우 넘겨준 우리로서는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부담과 불행은 안게 된다.

다섯째, 민족에 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현재와 같은 상호불신과 긴장조성 및 대치국면에서 오는 비용을 비하면 훨씬 적게 든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대북 경제지원과 교류협력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정치군사적 부담과 불행을 덜게 된다.

시대적 소명, 정책의 일관성

다섯째,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6·25의 아픔은 그 무엇에 비할 수 없이 큰 것이다. 하지만 장강이 넘버니 변화정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화해와 협력, 사랑과 지비의 새장을 열 때이다. 따라서 92년 서명 발표한 남북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문민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과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한 내용 배 장관으로부터 "북한(復讐)"을 강조한 권오기 부총리의 취임사와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북한시장의 선점, 잠식을 막기 위해서이다. 두만강 유역의 개발이 미, 일 유럽국가들의 관심속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동시에 북·미, 북·일의 국교정상화 움직임에 따라 북한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강대국에 의해 선점,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해외시장 점유를 위한 준비기간이 수습할 결리는 일본적 특유의 신중성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년부터의 움직임은 다름이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경계하고 우리가 먼저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은 전략적 행태가 되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한다. 실제 우리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기업이 진출해야 할 분야가 선점당해 투자기회를 잃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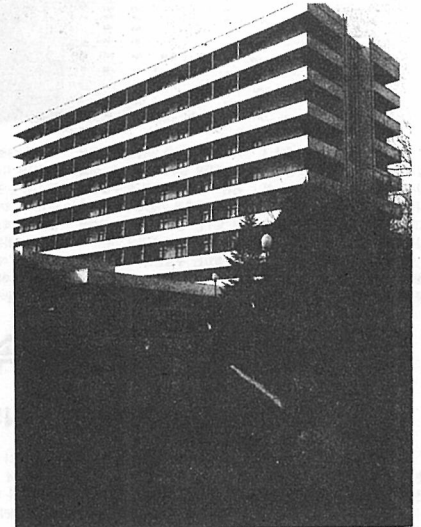
일곱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화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 역시 정치·군사적 일관성을 강조하는 수구세력의 목소리가 높다고도 한다. 그러나 동북아 내지 세계경제의 흐름을 감안, 한반도의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개혁되고 개방을 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 역시 상당수준 반영되고 있다. 북한도 크게 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한도 변화하고 고급 정치의 연계되지 않는 순수한 경제 지원·협력·교류를 적극화해야 한다. 내가 변화에 남도 변하는 법이다. 순수성과 사랑을 전제로 한 접촉이아말로 북의 변화를 끌어내는 지름길이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중요성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단순한 경제 문제기 아니라 민족경제의 형성, 민족통일성의 회복, 남북한 산업구조의 조정, 민족교류 증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은 상호이익의 추구뿐 아니라 남북간의 상호 신뢰성을 이끌어내어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단거적인 정치적 효과를 의식하거나 재채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체제는장이나 체제간섭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경제 이익과 함께 남북간의 신뢰성이



경제협력은 더이상 원초의 차원이 아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협은 남북 공동의 발전정책으로서 추진해야 한다. 사진은 금강산국제그룹이 북한측과 합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양 보통호텔의 모습이다.

구축되면, 이는 당연히 민족통일성 회복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교류·협력의 또다른 중요성은 남북한의 산업구조를 조정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즉, 남한은 자원, 기술 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고,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원개발분야를 북한지역으로 옮기거나 공동으로 담당하게 되면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결합하는 차원, 소비재산업과 경공업은 북한지역에 배치하는 등의 구조조정은 북한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차원에서 중요하다.

한편,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남포공단에 우리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기술지도도 하고 있고, 재발출수물로부터 중소기업 사장 및 많은 책임직원이 남북 간에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차원에서 중요하다.

세계는 글로벌화, 협력하에 국가간의 경제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한

반도 주변의 4강과 유럽, 아시아, 남미 제국과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도전과 경쟁속에서 살아남는 전략으로서도 교류·협력을 통해 하나가 되어서도 생존의 전략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낙관적으로 생각하여 세계의 중심축이 20세기의 구미지역으로부터 21세기에는 아·태지역으로 옮겨간다고 볼 때, 아·태지역 중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한반도가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즉 미·일·중·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남북한의 중심축이 된다면 공동의 번영과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민족통일성,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 민족교류 활성화 등이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 대 전제이다.

장 원 석

(단국대 농업경제학 교수)

先則制人(선즉제인)

급수가 같은 맞수들의 대결에서는 바둑의 흑(黑)을 쥐는 쪽이 유리합니다. 먼저 놓으면 상대가 받지 않을 수 없는 수(手), 즉 선수(先手)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제일 나중에 하는 일을, 현명한 사람은 제일 먼저 실천합니다. '先則制人(선즉제인)' 남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바로 으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한학기를 마감하고 다음학기를 준비하는 여름방학은 한 걸음 미리 앞서 내딛을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모든 행위 포괄(?)하는 만능 국가보안법

국민기본 권리 침해 ... 국제적 비난 무시

인권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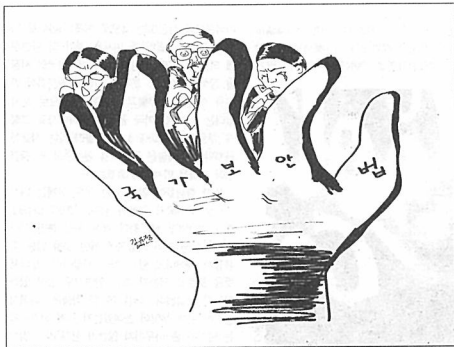
- ①국가보안법의 세계적 실태
- ②대만의 백색공포
- ③태국의 국가안보법
- ④한국의 악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50년이 지난 198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48년 5월 10일 부대의 화장을 의미하는 남한만의 단독선언을 반대하는 제주 민중들은 대규모 투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제주도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미군정은 당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 전입명령을 내렸으나 14연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여수군민간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다.

국가보안법 악법인 이유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완성과 결실보다는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악법인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 포괄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초 조국통일방안특별회 관련 구속자들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민권이 민간통일운동단체인데서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침해 등을 범민권이 주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왔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난 90년 정부가 가담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과 충돌하는 법률으로 기록되었다. 그것은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과 B 규약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출판, 집회, 결사, 의사, 표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은 권리에 대한 완전봉쇄와 함께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7조 1항 고문규정, 5항 이적죄를 소지탈취의 경우 법 해석에 있어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공판당국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 전무후무한 단일사건 처벌대상자 천만

한편 최근 서울지법 재판 1부는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 이적표현물 위반혐의로 수사할 뜻을 비추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80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태백산맥'은 이력이 담고 있는 작품성과 역사성에 대해 문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책을 읽은 독자만도 남한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남한 최대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기에 만약 소설 '태백산맥'이 이적표현물로 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책을 읽은 1천만명으로 추정되는 독자 모두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탐독죄로 형사처벌과다 한다.

이에 국제사법위원회나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보법의 개정 내지는 즉각 폐지를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미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자나라 인권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보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보법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개정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보법의 반민주성을 알리는 대한민국전진과 함께 국회에서의 청원사업, 그리고 8·15통일운동 기간에 국보법 철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으로써 국보법의 폐지가 속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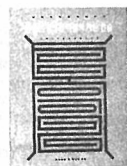
고상만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부장)

이 책

통일, 연습을 확실히!

통일을 꼭 해야 할까? 통일은 왜 필요한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도시출판 '도하'의 '통일' 시리즈)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 누구나 한바탕 생각해 보았을 법한 여러 질문들에 논리적으로 답해 준다.



지?'라는 고개를 눈으로 상태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그 못마땅한 시선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이책에는 '우리는 북한을 꼭 조선이라 부르는데 익숙해져야 하고, 북조선 또한 남조선에 남한이라 부르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단어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서로가 다른 집단이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때부터 받아온 반공교육이나 '통일의 장'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고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됐다. 북한은 괴뢰군이 모인 빨갱이 집단이고 매우 가난하게 산다는 생각이 바로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통일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됐을 때 북한주민에게 '그동안 살기 힘들었지요? 잘먹지도 못하고 공산당이 억압하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허윤숙 기자

생활 속에서

유무해에 관한 공담(空談)

내 허리에 붙어있는 바베가 만약 전자파를 방출한다면, 머리를 잡고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가 직접 머리에 전자파를 방출한다면, 요즘 전자파의 유무해를 놓고 학계와 일반인들이 지레잡고 있는, 고압선이 지나는데 어린이들에게 빨갱이와 뇌종양이 많이 발생한다고, 여러가지 설이 있다.

그럼, 전자파란 무엇인가? 전자파란 물리학과에서 말하는 전기·자기파를 말하며 물질이 아닌 에너지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온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4월 발표된 '서울지하철이 국제 기준치보다 약 5배나 높은 전자파를 방출, 백혈병이나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 대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이다.

제품명 방출량은 전자파인자의 경우 30cm 거리에서 전자파를 아닌 마이크로파의 세기로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전파기는 유선보다 무선

이 15배 높았고 전자기파도 백열등은 안전한 데 비해 형광등은 근거리 사용에 피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결과 못지않게 그렇지 않다는 증거도 많아 학계에서조차 전자파 유무해에 대한 입장이 갈라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자파 유무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전기장과 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계획에 착수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전자파들은 전자파를 방출한다. 미국의 경우 안테나를 지상에서 30m 이상인 곳에 설치해 전자파를 최소화하는 등, 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나 논쟁도 없는 실정이다. 유무해 논쟁을 떠나 국민의 건강보호 및 예방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박병주 기자

신재벌정책에 대해

신재벌위반 '누가리고 아웅'

최근 재경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작으로 신재벌정책구상이 발표되어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재벌정책의 새로운 내용은 대충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와 달리 향후 재벌규제의 강도를 재벌의 규모에 따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미 중하위 재벌에 대해서는 예산관리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투자선박업이나 생명보험업에 진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둘째, 앞으로 재벌의 존재나 규모 자체를 문제삼아보려는 재벌총수의 경영권행위와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금년중에 화산법, 증권거래법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와 기업간의 모든 자기거래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을 강제하여 의사결정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너 중심에 대한 내부감시권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범주에 부동산 및 자금거래를 추가하여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되었다.

셋째, 현재 자기자본의 200%까지 허용되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제한을 내년부터 100%로 축소하고 2001년에는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신재벌정책이 총선 직후에 발표된 상황과 배경으로는 대선을 앞둔 권력누구기적 상황에서 재벌 기업들이 해야 할 전경의 필요와 두 핵심국가의 수위협약의 구속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재벌규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적잖이 깔려진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정권과 재벌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언제든지 국민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정책누구기적 때문에 이번의 신재벌정책에는 그동안 논의와 검토의 대상이 되었을 뿐, 상황을 못마땅히 생각하지 않았던 정경계와 이르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수단들이 총동원된 인상이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위장계열사 문제와 계열사간 자금자녀거래 규제방정, 그리고 다양한 내부거래금지 강화는 재벌의 실상을 매우 불투명하게 하는 듯하다. 그 결과 재벌들은 불투명한 실상을 드러내면서 반대의견 개진과 반대파를 조성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을 '보안'한가? 여인이 없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기업경영평형성제라고 기업경영정형성제라는 명분을 내세고 가짜합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 일이 나오기도 있다. 선진국형 신재벌정책을 수용할때도 업종전문화, 투자제한, 예산제한 등 비선진국형 규제방정들은 차제에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전부다 무방한 말이다. 우선 신재벌정책은 계열사간 자금보충제한의 단계적 폐지방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제개혁적용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재벌정책이 시행되어도 기업총수의 지위를 오늘날만큼 재벌총수의 불합리기가 다소 시정될 뿐이지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킬 요인은 많다. 기업인명령과 추진, 사회간접자본 민주적, 대적경쟁활성화, 기업인수규제완화, 통신사업 등 신용규약사업의 출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정책의 주안점을 경제력집중 완화정책에서 총선정형화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완화와 그로 말미암은 재벌의 사회적 세력강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서 경제효율성은 물론 민주정치의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혹자는 세계와 시대가 온 만큼 이제 재벌의 존재나 규모 규모 자체를 문제삼을 것은 없고 다시 재벌의 확장을 막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다시나 섣부른 것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재벌정책의 실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소수주주권 강화와 의사소통 도입, 그리고 자기거래 공시와 총수의 이기적 경영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재벌정책의 기업공시제도와 경영권정형화기 가장 잘 발달된 미국의 예를 볼 때 매우 회의적이다. 우선 소수주주권을 강화해도 소수주주권 그 권한을 행사할 여인이 별로 없다. 총수 회장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알게 되어도 주식을 팔고 말지 못하러 자기 시간과 돈 세가며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겠는가?

다음으로 미국과 같이 불리한 사회에서도 독한한 사회이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의 같이 보면 이미 집중되고 연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총수의 친구 역할이 아니라 감시인 역할을 담당할 사회이사를 구하기가 기대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연유로 해서 신재벌정책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신재벌정책의 목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경영권정형화의 실질화와 기업공시의 강화로 유력한 경영, 부당한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표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경제력집중완화를 포기 내지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경영권정형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노동조합의 활성화, 노동자거래의 도입, 공정거래법정의 확립, 그리고 기업경영정형시 시민운동의 활성화 등이 있는 것이기 기업경영에 별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는 소액주주들의 권한한을 강화하는 데 있지 않다.

박노현

(방송대, 사회경제계)

정진경영·초우량 LG

화학강국이 세계강국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진다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의학산업... 인간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는 모든 첨단산업도 알고보면 그 핵심기술은 화학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 LG화학은 한국 최대, 세계 굴지의 종합화학회사로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화학 강국

LG 화학

LG 화학·LG 석유화학·실트론·LG 엘라이드시스템·LG 오일스코프·LG MMA

최고의 고리화학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의학산업... 인간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는 모든 첨단산업도 알고보면 그 핵심기술은 화학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 LG화학은 한국 최대, 세계 굴지의 종합화학회사로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화학 강국

LG 화학

LG 화학·LG 석유화학·실트론·LG 엘라이드시스템·LG 오일스코프·LG MMA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의학산업... 인간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는 모든 첨단산업도 알고보면 그 핵심기술은 화학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 LG화학은 한국 최대, 세계 굴지의 종합화학회사로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화학 강국

LG 화학

LG 화학·LG 석유화학·실트론·LG 엘라이드시스템·LG 오일스코프·LG MMA

사전검열제 정말로 폐지되나?

60년 만에 사라지는

사전심의,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람들은 '사전심의제도'가 대중가요, 민중가요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 사전심의 제도가 지난 7월(금)을 기해 소멸되고 이를 기념하는 콘서트 '자유'가 개최됐다.

지난 7월(금)부터 9월(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반세기 이상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억압해 온 음반사전검열제 폐지를 기념하는 콘서트가 있었다. '자유'란 이름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엔 출연자 모두가 돈을 받지 않고 나라의 공예 대중가요계가 맞이할 새로운 환경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양희은, 신지현, 윤도현, 노재홍, 장은하, N·EX·T, 신상우, 박재민, 꽃다지 등의 사전심의 철폐에 뜻을 같이 한 가수들이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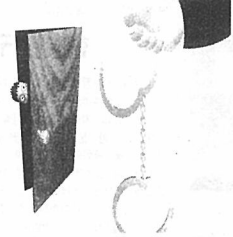
일제시대 '레코드취체법'에서 시작된 사전심의는 후에 군부 독재정권 시대를 겪으며 더욱 대중음악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로 자리잡았다. 70년대 민중가요의 대표자인 김민기를 비롯해 '야, 대한민국'의 정태춘, '죽음'의 안진희, '돈'의 강산에, 심지어는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바로 공연윤리위원회(공윤위)가 행해는 탄압을 겪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탄압을 겪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탄압을 겪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탄압을 겪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전심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심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심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법률안의 행정에 대해서 말한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도 지난 4월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결국 기소유예로 풀려난바 있다.

당시 개정된 입법에 참여한 당시 민자당 박종홍 의원은 "앞으로 표현의 자유문제는 국가보안법, 형법 등 다른 법률로 다뤄져야 한다" (한겨레 신문, 95년 11월 16일)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젠 사전심의의 철폐가 가졌던 음반물에 대한 감시가 없어진 이후 국가보안법이 대신하게 될 것으로 '조심사'의 경우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로 이뤄지는 대중가요의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때이다.



실질적으로 사전심의보다 더 대중가요, 민중가요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공연이야기1 - '96외대인의 날

주민들과 공유한 대학문화의 장

개교 42주년 기념 '96 외대인의 날' 행사가 지난 7일(금) 용인캠퍼스에서 열렸다.

비가 내린 관계로 예정보다 1시간 반 정도 늦게 시작한 이번 행사는 '1부 외대인 한마당'과 '2부 KBS 열린음악회'의 순서로 약 3시간에 동안 진행됐다.

비가 내리자 학생,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을 염려했던 관계는 날씨 만 여명의 학생, 동문, 주민들이 참가해 많은 관심을 반영했다.

1부의 첫 행사 '지하철 동아리'는 종로연합의 동문들이로 시작해 오는 10월에 있을 용인캠퍼스 세계민속예술문화축전(세민축)을 준비하고 있는 과들 중 몇 개과가 각 민족의 고유민속춤을 선보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노래마당'에서는 서민가곡, 아프리카어 등의 민속노래와 본교 동문인 가수 유열, 권진영 선배의 노래가 이어져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갑작스럽게 '96 외대인의 날' 행사를 준비한(원래는 KBS 열린음악회만 열릴 예정이었다) 이유에 대해 총동문의 사무총장 한용근씨는 "동문들의 제안에 따라 주민, 학생,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공연이야기2- FBS가요제

늦은 밤까지 함께한 노래잔치



대학인들은 노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작된 제17회 FBS가요제가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안경이(사범·독과 교양, 신구호(사상·이태원)가 공연한 '노래'는 학생들의 화제를 모았다. '노래'는 학생들의 화제를 모았다. '노래'는 학생들의 화제를 모았다.

총 8명의 참가자들이 이경호는 달리 모두 개인이 아닌 단체로 이루어진 대학인이 함께 한다는 또 다른 공연의 취지를 더욱 살 수 있는 자리였다. 처음에 적었던 관객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가 채워져 마지막에 이를 때쯤엔 거의 공연장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공연 중간에 가수 서준서씨와 동문들이 초대되어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특히 시상식 직전에 있었던 동문들의 공연은 '변

2부 'KBS 열린음악회'는 외대인 한마당에 출연했던 유열, 권진영 선배 이외에도 '아름답게 주는 나무' 이은하, '소방차' 등의 기상가수들의 한 마당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행사를 지켜본 모험의 한 주민은 "이번 행사가 있다면 연재도시 학교에 찾아오겠다"며 주민들이 학교행사 참여하지 않는 것만을 원할 것이라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라는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번 행사는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로 인해 관객들을 2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고 단지 경관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공연장소를 명수당으로 정한 바에에 관객들이 관람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가파른 곳에서 관람하는 이들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행사는 만여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이 참여했다. 이는 학교측의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은 바 크다. 학생의 행사 - 예를 들어 대중제나 세민축 - 에도 대학인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준다면 대학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윤승노 기자

창작을 고민하는 이들의 땀방울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혹시, 외대인 여러분

들은 지난 주에 마네르바 동상을 지나가다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이제 한 일인이라는 심정으로 칠사장에 반

래미틀 매달려 있는 관자람을 자제해

들었다 보면 거기에조작한 솜씨나 우리

의 대문학자들의 한

하기 동안의 활동과

물론이 시, 그 결과

결합하지 않아 보이는그

림들이 지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구석까지 뻗어서 팔고 있는 '화

진'들도...

'화진'이란 이번엔 발견된 작품들이

롭다. 이번엔 화진작품이 등록금 투

쟁도 한창 전개중인데 잘 보아주세요

는 가장 큰 무기일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한다.

외대문학회시집 '화진'



더 중요한 것은 외대문학회는 이름으로 묶여진 우리들 말고,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해서 느끼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이다.

문학이란, 때로 한 사회의 정신적인 위기를 상징하는 화기

가 가장 큰 무기일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한다.

사람이 비록 많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외대내에서 아직까지 순수문학을 지켜 나가고 창작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대학의 한 부분일 것이다.

물론, 예비형들이 어느 동아리보다도 실재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새대기가 없는 데에서 오는(단, 두 명이

다) 활동상의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대문학회는 이름으로 묶여진 우리들 말고,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해서 느끼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이다.

문학이란, 때로 한 사회의 정신적인 위기를 상징하는 화기

가 가장 큰 무기일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한다.

김 정 애

(외대문학회, 사범·한교 3)

문 화 단 신

서 울

연극회 22회 공연 개회

지난 5월(수), 7일(금), 8일(토) 3일 동안 대강당에서는 외대연극회의 제 22회 공연 '우리 내일을 불렀다' (연출 김성일)가 무대에 올랐다. 신의화원동원의 배우로 공연된 만큼 성숙된 연기나 노련한 문법보다는 새대기다운 풋풋함이 느껴지는 연극이었다. 제 14회 서울연극제에서 연출상을 받은 작품인 김성일씨가 직접 연출을 맡아 무대에 올랐다. 재발과 권력의 결탁, 마약배출을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 민중을 위한당신과 조지의 대의를 내세워 조직원의 회의를 영웅시하는 이승진 등을 맺을, 망식, 권유 등의 에피를 통해 전개해 나간

해의문학회 영화제 열려

외대인에게 좀더 깊이있는 해의문학 작품을 소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던 해의문학회가 오는 10월(일)과 11월(화) 이틀 동안 대학의 소강당에서 영화제를 개최한다. 해의문학회를 원칙으로 한 영화 4편을 상영하며 자료품을 통해 관객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다. 첫날은 '프라하의 봄' (필립카루프만 감독)과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마틴 스콜세지 감독), 둘째날에는 '장미의 이름' (장조르 아노 감독)과 우리 영화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를 상영한다. 이번 영화제는 어느 영화제와 달리 관객에 중점을 두고 문학작품이 영상화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리고자 한다.

여학생위원회 영화제 가져

제 9대 여학생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화)부터 7일(금)까지 3일 동안(현충일 제외) 여학생 휴게실에서 3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날로 높아 가는 여성의 의식들이 영화를 통해 반영되고 있는 면면을 보여줄 수 있었던 '유리열의 해단' '개 같은 날의 오후' '재민과 피의 소녀'가 학생들에게 선보였다. 하루 두 편 상영한 것 중 3시에는 여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 5시 상영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입장시켰다.

천하를 일고도
한잔의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려 하지 않았던 나폴레옹



새벽 5시.
커피한잔으로 잠을 깨고
창제의 자리로 가는 나폴레옹.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어느 아침, 나폴레옹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유럽대륙의 반을 발아래에 둔
대제국의 황제로서 아침.
아니 새벽부터 해야 할 일이
언제나 산더미처럼 많았던 나폴레옹.
만인이 우리를 보는 황제의 자리 -
권력이 주는 당혹감 만큼
책임이 더 많은 일대일과 고쳐.
나폴레옹은 그래서, 새벽에 부스스한 정신을
커피한잔으로 말끔히 추스렀습니다.
커피한잔으로 시작하는 황제의 하루.
그때, 최고의 자리에도 커피가 있었습니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간.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우울해지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험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
커피한잔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간을 부드러운 향으로 물들이는 커피한잔.
메마른 삶에 향기로운 나폴레옹.
다가는 좋은 친구

동서식품

생명의 활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공공부문 노조, 4일 쟁의 발생 신고

해고자 원직복직 임금가이드 철폐 · 공무원 단결권 내걸어

지난 2일(월) 서울 보리매 공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회의(공노대)는 3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공노대는 이날 총회에서 정부에 대해 여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부의 즉각적인 해고자 원직복직 조치 △정부의 전임자 축소방침 철폐 △공익사업자의 직권중재조합의 철폐 △교사 ·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고용불안 문제' 해소 △정부의 임금규제지침의 철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위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임금급 단체협약 미비로 사업장은 4일(화) 공동행동의 발생 신고를 하며 공노대 대표단은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관련하여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폭로할 계획이다.

또한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해고자노동투쟁을 전개하고 오는 11일부터 13일(수)에 '쟁의위원회'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공동으로 실시해, 13일 공노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투쟁방향을 발표하기로 공동투쟁방침을 밝혔다. 공동투쟁방침에 따라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조계광사 노조 등 4개 공공부문 노조가 임금급 단체협약 협상이



지난 2일 조합원 총회를 가진 공노대는 해고자 원직복직, 직권중재조합철폐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위의 관철을 위해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그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결합됨에 따라 4일(화) 쟁의발생 신고서를 냈다. 그동안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한때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환경정

책과 임금규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제 3자의 직권중재조합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보았듯이 교

사 · 공무원의 단결권 금지지를 앞세운 채 노조결성마저 방해해왔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 노조에 가해지는 정부의 강력한 노동탄압의 결과로 현재 해고노동자의 대다수가 공공부문노조 출신이다.

공노대 정책실장 서달원씨는 이와 관련 "우리는 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수탈당한 강요당해 왔다"며 "하지만 협상상 공공부문 사업장의 국가, 사회적 역할을 인지하여 최대한 대화를 통한 성실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 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조합을 적용, 탄압한 대면 결사투쟁으로 맞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 공공부문 노조라는 이유로 더이상 노동자들의 올바른 노동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당연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이뤄지기를 바란다.

공공부문 사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후유증 또한 한 것이기에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참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노동자를 인식할 정부는 가져야 할 것이다.

박병수 기자

사회단신

경원대재단, 폭력배까지 동원

농성중이던 총학생회장 부상

학원자주위투쟁과 관련해 두명의 학생이 죽었던 경원대의 재단과 학생들의 대립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경원대에서 조직폭력배들과 학교직원들이 학생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학생회는 '경원대의 정상화를 위한 57지 요구'를 검토하고 학교측과 협상을 시도하며 총투표를 통해 대학본관과 모든 기관을 점거하고 있

다. 대학당국이 점거를 해제한다는 조거능력 협상할 뜻이비추자 학생들은 곧 점거를 해제하고 협상하러 왔으나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중 '총장 퇴진'과 '학생처장 퇴진'을 인정하지 못해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학생들은 7일까지 대학에 입하지 않을 시에는 점거를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대학당국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학생들은 대학본관으로 향했고 이때 대학당국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폭력배들과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집단구타했다.

이일로 경원대 총학생회장의 목마가 부러지고 30여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침탈당해

한국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호소였던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에 공권력이 동원된 침탈당했다. 지난 3일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들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에 찾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내과인 문정(34세), 디르타(34세) 부부를 연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이 교회 담임목사인 김해성씨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탄 자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의해 막히지 못했으나 8시간 후 경찰 50여명이 동원된 침탈당했다. 지난 3일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들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에 찾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내과인 문정(34세), 디르타(34세) 부부를 연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이 교회 담임목사인 김해성씨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회의는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의도적으로 저지하고 탄압하기 위한 법무부의 비도덕적인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7일부터 9일까지 규탄대회 및 석방을 위한 집회를 열고 법무부 등을 항의방문했다.

민교협, PCS 사업자 선정 반대성명 발표

지난 4일 민주투쟁을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는 PCS사업자 선정에 있어 재벌기업이 아닌 국민기업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정부가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재벌기업들에게 사업권을 넘겨주려 하는 것에 대해 이는 재벌과 결탁한 정부의 '재벌 손아귀'라며 정보통신사업이 60조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임을 감안, 반드시 국민전반에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민간기업 또는 국민 전체에 간접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된 국민기업에 사업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교협은 이 성명서에서 "통신사업의 재벌 이양은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우리 사회경제의 비민주성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독재시대의 길을 여는 것이다"라며 "민간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재벌과 추악한 거래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재정에 적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총련 구국단식단 농성

'신한국당 부정부패 청산'과 '대선자금 공개'를 위한 한총련 구국단식단농성이 지난 28일(화)부터 명동성당에서 국회개원에 맞춰 연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거리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받고 있는 단식단 140여명은 3일(수) 전두환 · 노태우 공판 합의방문, 4일(목) 신한국당, 국민회의 항의서한 전달, 5일(금) 국회의사당 항의방문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있었던 국회의사당 항의방문 중 용인캠프로 남정철(인문 · 언어 4군)을 포함한 44명이 연행돼 신고유류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회장 정경관은 서면으로 "폭을 결코 허무하지 않고 투쟁을 벌여나가는 구국단식단의 모범을 통해 우리 청년학생들이 역사적 요구와 민중의 부름에 부응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으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6·8민주화회의 의의와 과제

실질적 연대통한 국민의 권리찾기

민생권보장 · 김정권 규탄등 내용가져

대선자금 공개, 오일문제 완전해결,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6·8민주화회의가 지난 8일(토) 전국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한국통신, 조국통일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주요 단체들의 대표자가 참가해 각계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민주화회의는 그간 사안이나 토론장상으로 이뤄졌던 계층간의 연대행 국책하는 것과 사회전반의 민생권 쟁취를 정치적 투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에서 제기된 것이다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5월말에서 6월초로 이어지는 민주노동 운동의 임금 · 단체협약 투쟁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맞춰 각계각층의 요구를 만들어가는 장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 3년간의 실정으로 김영삼정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지지자선거와 올해 4·11총선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김영삼은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대선의의식 확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이유로 '신노사관계'라는 제도를 내세워

복수노조화를, 제3자개입금지 철폐 등 노동악법 조항 철폐를 검토하겠다는 것과 함께 노사관계 개편위원회로 노사화합을 이뤄내자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노동탄압책이며 노동쟁의의 기반화와 국민들을 연호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또한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재벌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철기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강제징계를 비롯하여 용인, 자행하고 있으며 또다시 살인 강행군이 대규모 전으로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국민을 배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을 펴는 김영삼정권을 몰아내는 장으로서 민주화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화회의는 다음과 같은 계층들의 요구를 총화하고 지지하는 자리기도 하다. 먼저 노동계는 PCS사업자 선정투쟁과 노동법 개정과 노조권장 축소 반대,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해고자 복직, 신노사관계 반대 등을 내걸고 있다.

또한 농민은 꾸준히 제기해온 통합의 보보협 정취와 최근 식용할 수임으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임개방 지지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시빈민 계층은 강제적 살인행위 반대와 영구전대주택의 보장, 노점상의 지점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학계와 문화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공안탄압 분파와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탄압 금지 등도 포함됐다.

6·8민주화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초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김대중의 실정을 규탄하고 각 계층간의 요구를 반정부투쟁으로 끌어내는 것. 둘째, 대선자금 공개, 오일문제 완전해결, 민주기본권 쟁취를 원했고 결의하는 자리. 셋째, 연시이 비록수해 동포돕기, 열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4차세대 재정의 담보정책과 관련 해결할 과제들에 대해 함께 합의하고 결의하는 장. 넷째, 더욱 현재적 전제된 각계각층의 투쟁에 전체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연시이 억압받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할 수 있다. 굳건한 계급 · 계층간의 연대를 통해 국민들의 힘을 직접 정권에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자기의 권리를 되찾는 길이다.

허운숙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 공권력 투입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가 지난 6월 7일(금) 명동성당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비도덕적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 중심가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다.

고영진 기자

파고다외국어학원

人材가人材를 만듭니다.

영 어	미 국 인	일 본 어	독 어 · 폴 어 · 루 마 니 아 · 스페 이 니 어
기초영어회화 SIDE BY SIDE - FIFTY A CONVERSATION - LADO COMMUNICATE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 (12강원) 1월 14일 1반/2반/교수진원 미국인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해/일본어 문법 스크린 일러스트와 함께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독어강좌 프랑스인 독어강좌 중국어인 중국어강좌 스페인어강좌
영어·청화·어휘·문법·진학·취업 TOEFL (L/C) TOEIC (L/C) GRAMMAR/Vocabulary READING/Writing (GRE/GMAT)/AFK 기초영어법·문법·청화·진학·취업·문법	INTENSIVE ENGLISH COURSE 1월 24일 주 5회/각 12주 소수정예 취업·진학·취업·취업·취업·취업·취업·취업	INTENSIVE ENGLISH COURSE 미국인 교수(학·박·석·박) 1월 5일 1반 12주 소수정예 취업·진학·취업·취업·취업·취업·취업·취업	NHK 일본어 취업·진학·취업·취업·취업·취업·취업·취업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PAGODA - 미국 WISCONSIN WEST 2~4학년 (1월 5일/2반) 2~4학년 (1월 4일/2반) 교과목: 일본어(4시간) 교과목: 미국대학(1월/2반)			

세계 4대대학 남극점 도보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극탐험대
사단 중앙이 고인양 탐험대장(본학원장), 총장대(본학원)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PAGODA



중문 274-4000
중문 274-4000
중문 274-4000
중문 274-4000
중문 274-4000
중문 274-4000
중문 274-4000
중문 274-4000
중문 274-4000
중문 274-4000



통 일 기 획

— 본교 학생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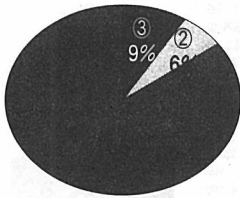
사 회 기 획

쌀 지원해야 한다 69%

경제·문화적 차이·외세 극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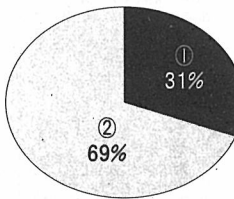
1. 북한은 하나의 민족인가?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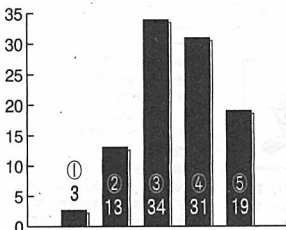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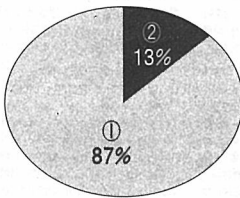
2. 북한에 쌀 지원에 대해

- ① 부정적
② 긍정적



3.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 ① 예
②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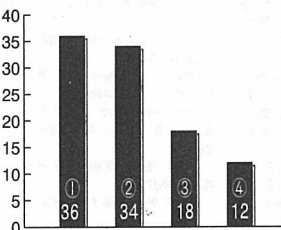


3-1. 통일의 가능년도

- ① 1년 이내
② 2-5
③ 5-10
④ 10-20
⑤ 20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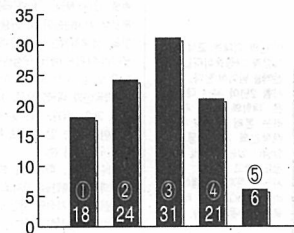
3-2. 통일의 방식에 대해

- ① 흡수통일
② 연방제
③ 국가연합
④ 기타



4. 통일의 걸림돌은

- ①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
② 서로의 문화적 차이
③ 경제적 차이
④ 주한미군 등 외세
⑤ 기타



통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저 알려져 있기에 해야 하는 일인가? 그리고 한반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국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외대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서울, 용인캠퍼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85%의 응답자가 '예'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결과만을 놓고 민족어단결의식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다음

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작년 8월 북한의 경제 피해에 대해 세계각국이 식량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점차 한민족이라고 여기는 한국내에서 만 찬반의견이 분분했고 아직까지도 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외대인의 69%는 한민족이기에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가 31%나 됐으며 이중에는 이들이 '보통을 경우 군량미 등 악용될 수 있다'고 이유를 말해 정부와 언론의 논리가 많이 퍼져 있음을 느끼게 했다. 또한 쌀지원에 있어 정부가 참구를 단일화한 것에 대해서는 55%만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찬성의 이유로 '통

제가 없으면 무질서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87%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가능한 년도로는 5-10년(3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외에 2-5년도 9%정도 있어 통일의 실현을 그리 멀게 보지않은 양상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일의 방식으로는 흡수통일이 36%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많은 이들이 흡수통일을 안정된 방식이라고 선전하는 정부의 의정을 많이 따르는 것으로 보였으나 연방제 방식과 국가연합식도 각각 34%와 18%를 차지해 통일방식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제 방식은 몇해까지만 해도 북한에 통조하는 것이라고 해 급기이 채택된 것이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걸림돌로는 경제적 차이(31%), 문화적 차이(24%), 주한미군 등 외세(21%),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통일의 필요성 혹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합의하지만 방식의 문제 등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을 보여주었고, 그간 미해

사회부

올해 통일운동의 전망과 상

'대동단결'로 출발하는 통일운동

평협·미군철수 내용 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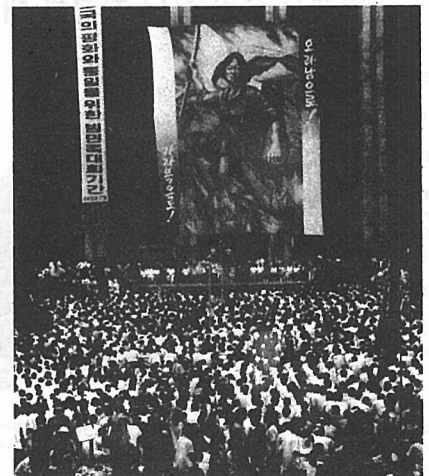
'통일'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생소하지 않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듣고 배워왔다. 그러나 그저 '하면 된다'는 어딘지없는 의식으로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일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매우 다양하다. 정부의 창구단일화 정책으로 인해 그 뜻을 많이 꺾지는 못하지만 만 문화나 체육 등 민간의 분야에서는 북한과 교류를 가지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정부의 단합에도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사람일 것이다. 이들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통일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예년과는 다소 달라진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첫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가 준비하고 있는 96 평화·통일민족대회(민족대회)가 있다. 이것은 작년의 8·15대회를 계승한 것으로서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으며 내용적 목표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 통일세력의 대대권을 들 수 있다. 민족대회를 준비하는 의견안에

도 통일을 위해서라면 관과 민, 통일세력 내부의 의견차이는 사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준비하고 있는 제 7차 범민족대회(범민대)이다. 범민대는 말그대로 7년간의 역사를 유지해온 대회이다. 또한 가장 중심적인 틀은 남·북·해외가 함께 대회를 준비하는 3자연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북한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단일의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범민련은 작년 11월경 29명의 간부가 연행·구속됐으며 올해도 범민대를 준비하는 청년단체 '나라사랑청년회'의 회원들이 대거 구속되었다.

이처럼 27가지로 나뉘어 열리게 되는 행사는 자칫 통일세력의 분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작년 처음 이렇게 행사가 나뉘면서 행사의 참가자들이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대회의 경우, 반통일세력이라고 불리는 김영삼정부에 대해서도 막연히 '통일을 원한다'고 말하고 말한 규정을 내리지 않아 자칫 정부의 논리에 빠져들지 않을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또한 작년 대회를 통해 남·북·해외의 3자가 합의한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편 범민대의 경우 행사 준비주체들의 대거구속으로 인해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족대회처럼 통일을 원하는 좀더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포괄할까



통일투쟁은 7년의 역사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이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 역시 그 한 예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두개로 갈라져 치러지는 통일행사는 '대동단결'을 통해 온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과제를 갖는다.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행사나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을 행사로 초대할 것인가는 아직 과제로 남는다. 좀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두 개의 행사를 치를 수 밖에 없다면 평화협정 체결, 5·18 미군개입에 대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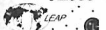
박병수 기자

오늘의 대안 평



正道경영·초우량 LG

도약 2005



"20代 지사장은 제가 처음이죠!"



꿈의 일터 - LG가 실현합니다.

임사한 지 4년만에, 저자가 공인하는 호주통인 대가 실력발휘할 때가 드디어 왔다. 향후 10년간의 시장 추이를 장일 분석한 결과, 호주통인이 일급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1.2년만 기초를 잘 다져 시장을 선점하면 연 100억 달러 매출은 거뜬할 것이다!

꿈은, 그 꿈을 꾸는 자만이 실현할 수 있다고 하죠? 최고의 인재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 - 일할 때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쉴 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터 - 바로, 세계 최고의 일터를 향한 LG의 꿈입니다.

LG는 당신과 함께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꿈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나가요!



□ 5·31교육개혁안 1주년을 생각한다 ③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대중평, 그거야 겉포장이 중요하죠”

경쟁심 유발 아닌 진정한 대학발전안이 필요한 때

94년부터 실시된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는 서울대를 비롯 전남대, 한양대 등 많은 대학들이 이미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2,000년까지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인정'과 '불인정'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대학재정의 확충’이라는 명분을 달고 실시되고 있는 대중평에 대해 평가에 의한 평가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대학간의 경쟁대결 구도에서 본교도 내년 서울·유명대학 학부와 대학원이 대중평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기로 한다.



편지자

97년의 외대는 교육시장 개방과 대중평이라는 두 과제를 넘어야 한다. 시월 2년의 지난 대중평은 ‘대학의 효율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를 떠나 대학간의 과도경쟁으로 갈라져 있는 개개의 부속을 두고 있다. 시월은 현재 대중평에 대해 제2차 목적 연구자의 모습.

대중평, 잘 보면 그만!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라는 대중평평가인정제(대중평)가 지난 94년부터 실시됐다. △대학교육의 수월성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재정의 확충을 근본 취지로 실시된 대중평은 대학원과 학부평가로 나뉘어 학부평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 실비, 재정·경영 등 네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자세평가와 행정비율의 평가를 통한 대중평의 결과는 비공개로 함하여 ‘인정’과 ‘불인정’이 보고된다. 94년 대중평 실시 결과 ‘인정’ 판정을 받은 한양대는 건원초·복지전문대학에 상당한 변화가 가져왔다. 김지연(사회학과)은 ‘현재로서는 방문기간에 학교 식당의 식단에까지도 바뀌었다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의 식단이 되돌아오고... 대중평이 이런식이나 싶었죠’라며 지난 대중평을 상기한다. 대중평을 통해 신선했던 건원초, 나 아닌 복지전문대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니 이후 연속성 없이 단지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무르고 재지기로 돌아온 대학의 모습에서 한양대생들의 대중평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전공으로서 자료실 둘러주세요”

‘경영학과 전공으로서 자료실’이란 이름을 달고 작은 교수연구동에 자리잡고 있던 공간이 경영학과 학생들의 미치 거를 돌볼 줄도 모르는 ‘자료실’에 머무르고 재지기로 돌아온 대학의 모습에서 한양대생들의 대중평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대학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경영계열 평가’를 바로 앞두고 시작됐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로 참혹했다. 전국 94개 대학 207개 경영계열학과를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 유인대학교 경영계열 학과로는 ‘우수경영학과’ 판정을 받은 반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는 82개과에 도 못미치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학과 자체평가위원회의는 ‘주관적 평가항목이 많았기에 얼마나 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됐는지’라며 평가방법이 잘못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교원에서 내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영학과가 개선해야 할 점은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라는 주관적 평가항목이 아니라 시설, 실비명, 재정·경영역역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자체평가위원회의의 주장과는 다르다 이 증명됐다.

이번 평가와 관련 경영학과는 정기총회를 통해 과발전위원회를 새롭게 재구성했다. 경영학과 과발전 오순환(교무)은 “평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도저히 한 제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다가가 대중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겠다.”

학생들은 시설, 학교는 재정불만

지난해 3월말 대중평을 대비하기 위해 18명의 교수들 주축으로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위원장 박석구, 경영학과 교수)가 구성됐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는 대중평에 있어서 본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등의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본교는 대교원의 평가항목에 따라 서울, 유인대학교와 대학원이 평가를 받

게되다 서울, 유인대학교가 종합평가를 받도록 분리평가를 받도록 하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강영은 기획조정처 심사분석주임은 “대중평은 대학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며 ‘외대’ ‘인정’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대학당국은 자체평가 결과 평가항목 중 교육, 연구부분은 상위에 속하나 재정부분이 가장 미약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늘 지적하는 시설·실비에 관한 부분은 있어서는 판정기준 이상이며 부족한 것은 서울대학교의 경우, 체육관과 기숙사 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이와 상이하다.

미국의 대중평, 불만정 80%

우리나라의 대중평은 199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중평평가인정제에 모 토로 한다. 미국은 ‘고등교육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전국대학, 지역대학, 특수대학까지 단체를 구성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3000여개의 대학이 난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평가기준은 우리와 달리 정적인 부분만이 평가대상은 대체로 상·중·하위 대학에 한정되어 있으나 평가를 신청한 대학은 20%정도로만 평가항목을 받게 된다. ‘평가인정’은 신임평가, 졸업생 취직, 대학위상향상 등에 주요 기준으로 이용된다. 유인은 흔히 가짜사사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 가짜 사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대중평’에 있다. 대학살

립준취직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 대중평은 학위인정의 주요한 단계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5·31교육개혁안에 의하면 준취직제를 도입하고 나서고 있다. 대중평을 통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대학은 대학살에 있어서 곤란을 겪게되며 급기야는 학위없는 대학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게 된다. 대중평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대중평

어디선가 “색은 두껍다”에 비단 천을 덮어놓은 격이란 문구를 본적이 있다.

이 말은 대중평과 연결할 때 더욱 의미가 두드러진다. ‘겉포장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대중평을 준비하는 본교 직원들 앞에서도 대중평의 본질을 지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 측면을 넘어서 대중평은 점차로 대학의 등급을 매겨 형·제정된 지원 운운하며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경영계열평가가 보여줬듯이 본 대중평을 통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은 산파에 있다. 이를 모순을 지적하는 평가가 끝나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고쳐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평가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본말의 평가에만 급급해 미분별되고 교차되는 것이 능사! 아니라 정부와 재정의 교육재정정책을 통한 사립학교, 외대만의 중점기 발전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내년의 대중평보다 지금 시기 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김재경 기자

외대와 나

대아(大我)속에서 소아(小我)를 성취하자



강영은
(기획조정처 심사분석주임)

이전의 체제와 제도와는 크게 다르 게 직장이라는 개념은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일을 통해서 즉, 일이 있어야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외대’라는 집단을 통해서 심어놓은 내 인생의 상당부분을 성취시켜주고 있으며, 외대의 유틸리티는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외대의 이름에 걸맞게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내국인중에서도 교수, 직원, 학생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말 그대로 특수집단이라고 규정지어 본다.

교수, 직원, 학생으로 분류된 다른 사고와 생활패턴을 가지고, 각자 다른 분야에서 지식의 전달과 학문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다른 이질성을 가지고 상이하다는 하나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여타의 사회집단보다 더 끈끈한 상호 이해와 노력이 요구되는 사회가 바로 대학사회가 아닌가 싶다. 그중에서도 ‘외대’가 더 더욱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또한 너무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는 소자가 다 분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러한 개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해본다. 또 한가지 우리에게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좋지 않은 여건을 어루 비

해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는 것 같다. 교수나, 직원이나, 학생이나 할 것없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외대’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해보는 우를 범하는 것을 나는 자주 보아왔으며 그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지나친 편견이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자신을 투영한 결과라고 본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것이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요사이 미국 델타항공이 대학교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대학원 조인 미미(Mimi) 양이 우리 집에 방문했다는 그녀가 우리 ‘외대’를 방문했다는 우리 대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나? 질문한 결과 그녀는 내게 “너무 너무 편리하게 캠퍼스가 배치되어 있어서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안다시피 델타항공이 대학교만 하더라도 넓은 캠퍼

스를 자랑하나 차가 없으면 매일 매일 걸어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곳이 아니다. 미미양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외대가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것만 한 것만 있었으나 뒤집어 보면 시간이 절약되고 얼마나 편리한 곳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하해버리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발전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보람된 일터를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제 1997년도에 대학종합평가라는 커다란 산맥을 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정확히 분석, 평가함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준 여건과 환경을 보다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데에 있다. 우리 대학의 종합평가 성적은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종합평가 평가부분보다 정성적인 평가점수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저 잘되겠지, 나 아니라고만 사담! 하겠지 하는 태도에서 곧 우리 외대를 구원할 힘이 되는 것임을 너와 나 우리 모두 다 함께 인식해야 할 때이다.

교직원에게 학생의 직장이요, 학생들에게는 숙을 때까지 지워버릴 수 있는 외대의 동문이 아닐까? 나의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충진적 노력을 통하여 대아(大我)속에서 소아(小我)를 성취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를 우리 모두 명심하자.

비빔밥을 먹이세요



○ 비빔밥 콩고 3년 학교와 학생 경험자들이 학교와 재단에 대해 ‘학원지주와 5가지 요구’를 내걸고 담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이요. 학교측이 보낸 강령들이 너무 바빠서 읽히지 않아요. 학생들 무서운 줄 모르고 300여명 구태령을 일하고 학생회장들은 목욕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어.

○ 아이! 하드가 맛이 있다고 자주 먹어대면 배탈이 나요. 배탈이 나요.

○ 요즘 이문빈에 하드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이서, 동태들을 형라 해 말라버리는데 - 크로콜라 알아

비니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컴퓨터 Hard를 연거푸 총창한 일이 발생했어. 또 다시 도난경보가 울리고 있다.

여러분 여름철 하드 조심하십시오. (전)

○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창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생: 예! 오늘은 고난도 문제풀이를 하자. 다들 공부 ‘들’이 아니겠는 무었이! 1번 풀, 2번 풀을 3번씩 풀어라. 이는 사람 손들이 보일.

아이들: (실감한 얼굴로 손을 들며) 3번! 3번! 3번!

선생: 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무를 잘하십니까. 다들 아이들은 원양제조시점에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숙)

○ 학교에 알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평화의 사대를 앞당기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재단이 제 역할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학생들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기쁘게 하고 ‘사건’ ‘민주’ ‘남부’ ‘해방’ 등 여러 불평등(7)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명예를 감추는 행위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이를 깊이 통찰하여 이 같은 불평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6. 6. 10 학생회 (성)

경고문

비둘기협판

이문빈

알립니다

제1회 콜로키움 있습니다. 주: 총교 육제 의회와 기능 강사: 유경희 박사 (인도어과 교양부강사) 때: 6월 14일 (금) 늦은 5시 곳: 사담대 203호

(콜로키움)

경영학과에 적을 두고 계신 모든 4학년생 (8월 졸업자, 2월 졸업자, 복수전공자는 취업준비로 작성) 6월 14일 (금) 늦은 5시 사 회과학관 306호에서 모임을 있으신 편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과 취업대표)

H·B에서 알립니다. 여름방학 12월 (수)에는 권재진 선생님 초청강연회가 있습니다. 인문과학관 210호에서 늦은 5시에 열립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무역학과 4학년생 보세요. 송일 교수님의 ‘한국·일본·미국’ 시험은 리포트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문제 1-9번까지 시험지 4매 정도를 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한: 6월 14일 (금) 제출처: 교수연구동 203호 (무역학과 알립니다)

해의문화의 문학학회에 열립니다. 때: 6월 10일 (월) 장소: 프라하의 봄 늦은 5시: 장미의 이름 늦은 5시: 최후의 유혹 늦은 5시: 엘리무트

6월 11일 (화) 장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늦은 5시: 엘리무트

키의 생애 (동아리 연합회)

ALC 여름방학 교내 영어특별반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초·중·고급 개강일: 6월 26일 (수) 모집기간: 6월 10일 (월)부터 선착순

모집처: “국외어 컨설팅

4866

〈학생복지위원회〉

아, 여름엔 뭐냐 벌써부터 걱정되지요? 이렇게 계획없는 불어인들을 위해 저희 상생단은 불어와 음악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불어과인이자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기간: 6월 21일 (금) - 6월 22일 (토) (resonance)

이민 민주정부 성사를 위해 수고하신 서여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저희 서여과와 학교 전체에서 두번째로 많은 202명의 참가를 했으며, 우리 과 투표율은 61.6%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결된 의지들이 반드시 민주정부를 성사 시킵니다. (서버이과와 홍보부)

제17회 FBS의대교양제를 위해 애쓰신 FBS 여러분 진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의회)

윤정, 상문, 유주야 마카오 여행준비 잘 갔다와라. 건강 잘 챙겨. 언니가 기도해줄게 (학한 동기)

왕산골

알립니다

할터 종합평을 합니다. 때: 6월 14일 (금) 늦은 5시 30분

회비: 5000원

회의안건: 회칙개정, 방학중사업

● 종합총회 후에 종합평에 의을 예정이니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황터)

● 손발사랑의 종합총회가 열립니다. 1화기를 마무리 지으십시오. 6월 11일 (화) 우리 동아리방에서 열립니다. (손발사랑회)

● 검토 종합총회가 있습니다. 때: 6월 11일 (화) 늦은 5시 30분 회비: 3000원 + α ●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부)

● 여름농활 갑니다. 기간: 6월 27일 (목) - 7월 9일 (금) 곳: 여주군 가남면 금곡리 금당 2리 (서양대학 학생회)

● 서버이과와 종합평을 합니다.

때: 6월 11일 (화) 늦은 5시 30분

곳: 교양관 203호 (서버이과와 학생회)

● 경건이 한면 만나서 보고싶다 (S.C.N)

● 이번화가 외대학보 1학기 종간호입니다. 기달시절 잘 보십시오. 여름방학 알차게 생활하세요. 저희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한 비둘기)

● 찾아주세요

● 현상수배합니다. 지갑을 찾습니다. 지난 6월 4일 학생회관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나 습득하신 분은 꼭 돌려주십시오. (지갑이 나오는 꿈을 꾸고 사는 이)

“비둘기 협판”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 빈 기자실로 연락주시요 광고는 없답니다. 하미법, 청리안: OEAD 나우노라: 외대총학 이문 빈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대학단신

용인

모교방문의 날

○ 지난 6일(목) 동·반역 연합회가 노년극장에서 모교 방문의 날(Home coming day)을 개최했다.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재학생 및 졸업생 선배들까지 총 60여명이 참가하여 발아구·농구·축구 등 체육대회를 진행했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와 관련, 회장 김윤기(동구·영기리 3)군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가던 동·반역 연합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로 뭉쳐졌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지난 9일(일) 플리화라는 모교 방문의 날(Home Coming Day) 행사를 운동장에서 지어내 열었다.

이번 행사는 플리화와 동문회와 학생회의 주최하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와 관련, 과회장 류승곤(3)군은 "선·후배와 교수들과의 유대 강화 및 동문회 조직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다"며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이태리어과 대사 초청강연회 열려

이태리어과는 지난 4일(수) 교양관 301호에서 1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이탈리아 대사 게리도 마르티니(Guido Martini)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마르티니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관계, 이탈리아인 본 한국인'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과 관련, 학생회장 김창식(서학·이태리어 3)군은 "이태리어를 공부함과 동시에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개최 취지를 밝히고 "전공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

북미 연구소 7회 콜로키움 개최

북미연구소에서 주최한 제7회 콜로키움이 오는 11일(월) 2시 서울캠퍼스 대강당 1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 가치관(American Core Values)"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현재 개방대 인류학과의 문 코이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 교환교수)의 발표가 있는 후 본교 학부생·대학원생·교수·강사들의 질문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이와 관련 북미연구소장 김기흥(영여과)교수는 "지금까지 북미 본교 콜로키움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으며 관심있는 학생·교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사진부 10회 실험전 열려

지난 6월 3일(월)부터 3일간 신문방송학과와 보도사진학회에서 제10회 실험전을 열었다. '실험전'이라는 이름으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사진전은 독특한 실험적 형식을 띠고 있다. '24시'라는 주제에 시, 장, 5·18, 국경, 아이들의 4가지 독립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바스 형식을 띠고 있다.

학회장 조영하(2)군은 "사진전을 정리하면서 학부제로 인해 새내기들은 과거 정해지지 않아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라며 감사의 말을 했으며 반성할 점은 "일반 학생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관계로 참여가 적었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학본부

노조 정기 총회 12일

본교 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정열) 정기총회가 오는 12일(수) 3시 서울캠퍼스 대강당 104호에서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결산보고 △규약개정 △제7회 조합장 및 임원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조 한 관계자는 "조합장 추가 후보등록기간이 5월 31일(금)부터 7월(금)까지였으나 등록한 후보가 없어 6월말로 선거가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27(목)부터 여주 농촌활동 예정

서울, 농민활동 연대활동으로 개칭

'청년학생의 사랑과 의리'가 가자! 여름 농촌 농민의 품속으로'라는 모토 아래 용인캠퍼스 여름농활이 오는 27일(목)부터 7월 5일(금)까지 9박 10일간 경기도 여주 마을 곳곳에서 진행된다.

오늘(10일)까지 각 단대·과 별로 농활 추진위원회(농주위) 건설과 여름농활 참가신청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농주위 발족식을 갖고 마을별 농활대체제로 전화해서 활동을 공유하게 된다.

사람중심의 농촌 구현·대중적 생활 수행·학생의 역량강화에 복무하는 농활의 3대 기조로 이루어진 이번 여름농활은 첫날(27일)과

둘째날(28일)은 경기동부총련에서 주최하는 농활학교를 열고 이후 본격적인 농활수행은 작업, 교양, 분반(이동반, 학생반, 청장년반, 여농반)활동으로 나누어져 실시된다. 또한 이번 여름농활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마을별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이와관련, 농활대장을 맡은 서양대학 학생회장 김석현(노어 4)군은 "농촌의 생활속에서 단결의 참 의미를 인식했으면 한다"라며 "참가자들이 각자의 농활지역에 대해 알고 지역주민들과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한다"라고 이번 여름농활에 임박해서 바람을 말했다.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 문화’ 생활협동조합 학생조합원 정기총회가 지난 5일(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생활 조합원들은 1학기 사업을 평가하고 협찬 2학기를 준비했다.

나눔의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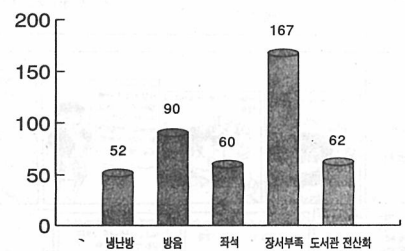
교육환경 스티커 설문조사 분석

“장서가 모자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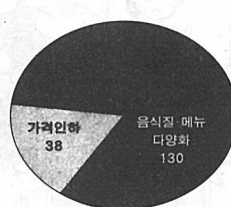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민주납부 총투표를 시작하며 도서관 전입로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서관, 식당, 강의실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 있다. 또한 학생들은 LAB시설교제, 동물계 연습공간 마련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 도서관 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2. 식당의 개선방향은



3. 강의실의 개선부분은



용인 제5차 확대운위 무산

학자평가,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

지난 4일(화) 열리기로 예정됐던 용인캠퍼스 제5차 확대운영위원회가 정족수미달로 무산되고 참석위원들의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5월 사업보고 △6월 사업계획 △학자사업계획 △5월(수) 학내지도 결의 △여름농활 결의 등을 주요 토론과제로 삼았다.

총학생회는 5월 사업계획으로 학생들의 학생회 참여와 단결이 높아졌다라는 점과 일꾼들의 헌신성이 높았다는 점을 들었으며, 문제점으로서는 학생회가 일관된 지도의 관점을 가져내지 못했었고 총학생회와 단대, 과 학생회의 전

일적인 체계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6월 핵심사업으로 △총학생회·총학생회와 매직전반비 △여름농활에 많은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 △방정사업·통일투쟁과 학자투쟁 및 세인전 전반 등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나정환(동구·체코어 4)군은 "바쁜일정속에서 5월을 힘차게 보내 일꾼들이 더욱더 힘을 모아 1학기회를 잘 마무리 하자"라며 "다음부터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보고싶어요... 얼른오세요”



언니, 오빠들 올봄 농활때 왜 안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작년 여름에 언니, 오빠들이 가르쳐준 '호박이 굴러와
떨기'가 굴러와 노래도 기억하구 있구요
체육대회 하던 날 앞마루에 농활 온 다른 오빠들이랑
축구할 때 우리마을 지는거 보여 서로 실망해하던 마음,
그 마음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가 물장화 신고, 흙묻은 얼굴로
웃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요

■일시: 7월 2일(화) ~ 11일(목)
(9박 10일)
■장소: 전라북도 순창

■일시: 6월 27일(목) ~ 7월 5일(목)
(8박 9일)
■장소: 경기도 여주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서평 - 한·중·일 삼국지

동북아 삼국의 역사·문화의 입체적 고찰

‘한·중·일 삼국지’라는 제목을 접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세나라의 관계를 이렇게 자연스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세나라의 역사는 수천년간 서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껏 일국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파악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나치게 배타적인 역사인식과 역사기술 때문에 한·중·일 삼국은 조급한 더 객관적인 언어를 수 있었던 단상당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른다.

이 책은 일국주의의 폐쇄성을 벗어내고 여타까지의 개괄적이고 평면적인 역사인식을 넘어서 동북아 삼국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해준다.

그렇다고 이 책이 딱딱하게 삼국의 역사를 강황하게 늘어놓은 단순한 역사책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삼국의 역사와 문화, 풍속 또 그 외종의 비화와 에피소드 등을 시대 구분에 매이지 않고 면서도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다.

세 나라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해내는 편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예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 ‘죄와 스승’에서는 삼국의 관계를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적인가 하면, 상대를 극도로 섬기는 스승의 관계로 정의하고, 중국과 접해 있으면서도 끝내 민족국가로 유지시킨 나라는 우리나라와 베트남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등 주로 아시아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2부 ‘음식문화’는 양귀비와 현종의 사랑, 소년경, 고려가요의 유래, 고사기, 민요집의 해석을 통해 본 일본의 호색문화 등을 하나씩 짚어가며 삼국의 상충관계를 다루고 있다.

3부 ‘모란꽃과 철지초’는 한·중·일

삼국의 문화사를 서술하고 있다. 재미있는 내용으로는 삼국의 문화적 차이를 찾아 비유하였는데 중국은 그 엄청난 문화적 동화력을 강한 왕가와 통일시대 모란꽃, 한국은 그 화려한 향기에도 꽃이 버티는 강인한 생명력의 진달래, 일본은 흐드러지게 피었다 한꺼번에 우수수 저는 벚꽃에 그들의 민족성을 비유, 설명하였다.

4부 ‘위기의 시대에 영웅이 탄생한다’에서는 장보고, 창기산, 김옥균, 이토 히로부미 등 삼국의 유명한 인물들을 주관적인 해석을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인간집단 역사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으며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5부 ‘비비우스의 띠’에서는 다양한, 때로는 서로 치명상을 입히기도 했던 삼국 역사의 궤적을 추적해 가며, 21세기를 여는 삼국의 새로운 관계를 조망해 보고 있다.

이 책의 글쓴이는 외대 중국어과 78학번 소준성씨로 나의 선배이기도 하다. 선배님이 직접 쓰신 책이 또 하나 있는데 작년에 많이 알려진 ‘북대별’이다.

80년 ‘서물의 봄’ 당시 주중 한문으로 6년 동안이나 힘든 수배생활을 하였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저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해박한 지식과 역사적 통찰력을 갖고 계신 선배님이 부러울 따름이다.

하 남 석
(동양·중국어 2)

내 마음에 모를 심으며

내 마음에 모를 심는다 비도 오지 않은
배마른 무논에 물을 채우고 씨를 뿌려
소박새 울음 따라 모를 심는다
질척한 논바닥을 이앙기로 돌고 나면
모들은 저마다 제자리를 잡아 쫄쫄 고개 들고
바람 따라 웃으며 지친 냇 옆에서
양옆으로 즐락하여 소리나게 심는 모보단
모양도 없이 소리도 없이 비틀비틀 하지만
혼자 모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낮에는 물을 먹고 밤에는 별을 먹고
내 마음에 여우는 밤 알맹이를
사람은 그렇게 오는 것인가
논바닥을 순례하며 생긴 상처로
광다리와 열굴에 그리고 가슴 구멍까지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도 좋다
돈도 하나 없이 끝은 사람으로 뿌리내리며
저 모들이 슬피 살아가는 날들 동안
깨끗한 희망으로 자라나길 꿈꾸다
내 마음에 비틀비틀 모가 심어져도
푸른 오월에 아름다운 사람이 내린다

박남용

(대학원 중국어과 5학기, 외대문학회)

생각할 게 무엇이

전혀 없습니다

이 쪽지는 총학생회에 보고 입학하러 가는
한 장에인이 보내는 것이다.
장에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도 확실하
기에 답할 것이 사실이다.
‘진짜’ 장에가 ‘입학’ 장에가 되지 않는 대
학이 되기 위해서 학교규정의 실질적인 대책
이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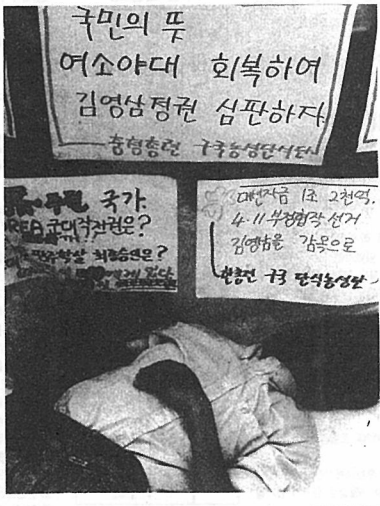
문학부

장에인 특이 입학제도
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외대는 있습니까?

서울시 서대문구 동촌1동 32-47

박영권

010-28-9222



사진수집

명동성당 오르막길에 설치된 비닐천막
에는 ‘신한국당 부정선거자 처벌과 대선
자금공개’를 외치며 매일 이어지는 거리
선전과 항의방문에 지친 학생들이 여기
저기 달린채 쓰러져 있었다.

단식농성 11일째
바빠 다치는 여름, 단식단이 거거하는
천막안은 그야말로 절망이건만 누구하나
호르는 말을 불렀지 않는다.
천막위로 쓰러진 글씨가 보인다.

자유없는 이방에
민주없는 이방에
정의없는 이방에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
우리 모두의 정의 이름될때까지
내를 버려서
내를 작은 빛이 되리라.
‘한국의 중국 단식농성단’

고영진기자

우리의 단결된 힘, 공동의 실천 민/주/남/부

58.1%투표, 93.72% 찬성
총 3937명의 찬성으로
민주남부결정

우리가 바라는 건 외대발전 뿐입니다



외대발전을 위해
도움되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민주남부! 한번 하는 겁니다.

이래서 시작했습니다

96년 등록금 1,695,000원, 15.5%인상
우리는 등록금 129만9천원, 4.5%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우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주남부를 통해
정당한 학생의 등록금을 총학생회 계정으로 납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3937명의 찬성으로 결정한 민주남부.
학교가 아닌 총학생회 계정으로 등록금은 납부할 것입니다.
1차 등록기간에 총학생회에서 자세한 등록방법이 설명된 서신이 발송
되었습니다.
1/4선까지 총학생회로 등록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 후 총학생회에서 집단적으로 다시 수납하게 되
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주남부로 학교규정에 불만이 생겼시 총학생회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
입니다. (중영서 발급, 도서관 출입, 도서관대 등)

민주남부 합시다.

애국외대 30대 생동하는 총학생회

총학생회에 알립니다.

우리 대학은 지금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국 대학 중에서 선정될 5개 대학대학에 선
봉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직원, 교수의 삼일일
체된 노력의 결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총학생회에서는 불법적으
로 등록금을 총학생회 계좌에 납부하고자 하
는 찬반투표를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실시하
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기관들이 대학을 주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불법적인 행위
는 우리 대학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도 크게 퇴락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이를 깊이 통찰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6. 6. 4

학 생 처 장